

현불뉴스

사적지정 사지 27곳

금년 8월말 현재 사적지로 지정된 사지는 모두 27개소인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문화재관리국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사적지는 총 3백93종 5천여건에 달하며, 이중 사지는 3백88건이며, 이중 사지는 3백88건이다.

한편 사지 및 명승지로는 경주 불국사 경내(제1호)와 속리산 범주사(제4호) 두 곳으로 나타났다.

사찰 16곳 환경위기

조계종 문화사회부가 지난 12회 임시총회에서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사찰환경 피해사찰이 16곳인 것으로 밝혀졌다.

병영사 선암사 범어사(아파트 건설) 천황사 신흥사(케이블카 건설) 대바사 화계사(도로확장 및 터널건설) 심복사(건축폐자재처리장) 관곡사(운천개발) 정암사(위락센터 개발) 연미사(주유소 신축) 백담사 선운사(휴양지 조성공사) 백련사 안국사(유니버시티) 대화장 건설) 봉은사(무역협회 고층건물 신축)이다.

'낙동강 공동체' 참가

대불정 부산지구(회장 이상대)와 낙동강공동체모임(대표 김성희)은 6일부터 21일까지 16일동안 낙동강 525km 36개 도시 마을 현장을 답사하는 '낙동강공동체 운동'을 펼친다.

부산 대불련 정기총회

대불련 부산지구(지구장 이상대)는 지난 2일 통도사 부산포교당에서 18개지회 1백25명이 참석한 가운데 32년차 하반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불교비하 발언 '물'의

신한국당 이명박의원(서울 종로)이 지난 8월11일 CATV 기록교방에서 "종이 떠난 다음에 모두(사찰에) 물뿌려버려야 종이 다시 못오게 만들었다"는 등 불교를 비하하는 강의로 물의를 빚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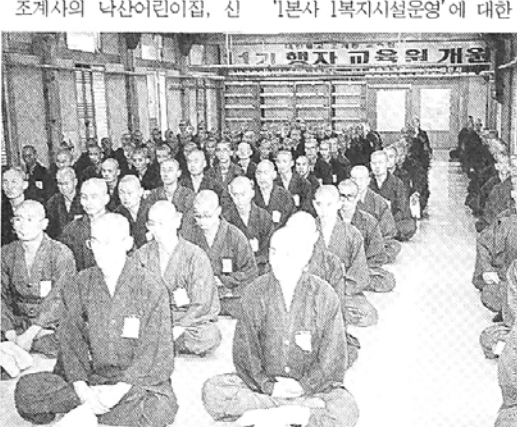
이 의원은 CATV 기록교방 송 '여명의 스페셜'에 출연해 '여명의 기도'라는 강연을 통해 마치 사찰이 혐오시설처럼 비하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본부에서는 임시총회에서 "진위를 확인해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1본사 1복지시설' 건의

불교복지전문가들 조계종에 8개 교구만 운영... 효율적 자비실천

한국불교사회복지협의회 주최로 열린 제1회 불교사회복지지도자워크숍에 참석한 불교복지전문가들이 '1본사 1복지시설'을 골자한 건의문을 채택, 조계종 총무원에 전달해 불교복지계의 신선한 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1본사 1복지시설'안은 국민복지에 대한 불교계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불교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조계종 25개 교구본사 가운데 복지시설을 갖춘 곳은 단 8곳뿐이다.



조계종은 지난 1일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제11기 행사 교육원 개원식을 봉행했다. 이날 고불식에서는 남해자 1백25명과 여행객 94명 등 총 2백17명이 일방했다. <해인사=이윤호 기자>

주장은 지역포교의 전기마련은 물론 불교사회복지 전반적으로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네스코 유산협약 준수 촉구

해인총림대책위 골프장 백지화를 위한 시민한마당 개최

가야산 국립공원 골프장 건설지 해인총림대책위원회(위원장 심병)는 지난 10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방문, '유네스코 협약'에 따라 관만대장경 보존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해인총림대책위는 이날 전달한 공문을 통해 "세계문화유산에 인접해 골프장을 건설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문화수준을 떨어뜨리는 '악재'라고 지적하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 권고에 근거해 가야산 국립공원내 골프장 건설이 절대 건설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네스코 협약에는 '각 체결국은 자국의 영역내에 존재하는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 보존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취해지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권고하고 있으며, 같은 정기집, 배수와 관개작업 등을 문화, 자연유산의 보호 차원에서 금지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 문화유산은 그 자체에 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유산을 둘러싼 환경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다. <관련기사 2면>

한편 해인총림대책위와 대구 환경운동연합, 덕곡면·고령군 대책위 등은 지난 5일 대구백화점 앞에서 해인골프장 백지화 촉구를 위한 시민한마당을 벌였다.

13일 정각회·16일 새연동회·내달 5일 청불회 조계사서 정치인법회 잇달아

불교계를 향한 정치인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이 반달과 다음달에 정당과 국회의원 청와대직원의 법회가 잇달아 조계사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불자국회의원들의 모임인 정각회(회장 서석재)는 13일 오후 5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회담단 취임법회를 봉행한다. 부회장은 하순봉(신한국) 박상규(국민회의) 구천서(자민련)의 원이다.

국민회의의 새연동회(회장 박상규)는 16일 오후 5시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에는 김대중총재도 참석할 예정이다. 새연동회측은 "조계사가 한국불교를 상징하는 곳이고, 앞으로 불교계가 같이 호흡한다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조계사로 장소를 정했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 불자직원의 모임인 청불회(회장 박세일) 사회 복지사(도)는 다음달 5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한다.

제주운전불자회 8월 24일 창립 50여명 "불심으로 교통안전·건전관광 앞장"

제주불자운전기사회(회장 고승학)가 지난 8월24일 제주 고관사에서 창립했다. 개인 영업용택시, 일반버스 및 관광전세버스 운전불자 50여명이 중심이 된 제주불자운전기사회는 서울 BBS교통통신원 서울개원택시기사포교회 대구 개인택시불교경향회 부산불교운전기사회 대전 한국운전기사 불자연합회에 이어 창립된 것으로 제주불교 흥풍도 물론, 교통사고를 1위 불안전한 관광안내 바가지요금 등 각종 부조리

의 오명을 씻어내는데 앞장선다는 입장을 표방하고 있어 도내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주불자운전기사회(064-51-0108)는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고관사 법화사 등 전통사찰 참배코스를 안내, 제주불교를 소개할 계획이다. 또 불자들을 위한 50%의 할인혜택과 기념사전을 선물, 불자로서의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회원이 1백8명까지 모집해 불교단체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히 할 방침이다.

한 것은 종현에서 이관과 사판을 구분하고 있는 취지에 어긋나며 "위험관계를 받아 조속히 총림설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총림설치법은 1967년 해인사 총림설치에 따라 제정되고 68년 개정된 이래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편 지난6월 백양사가 5번째 총림으로 인가를 받았으며 범어사를 비롯 본사급 사찰이 총림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총림설치법 중헌위배' 심판 청구 현봉·명진·종광스님 조계종 중앙총회 의원 현봉명진종광스님은 지난 3일 법규위원회에 '총림설치법 중헌위배'를 심판을 청구했다. 총회 선임직 대표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총림설치법은 제1조 근거규정이 중헌위배와 다른 근거불명의 조항이다"며 중헌위배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스님들은 또한 "총림설치법 제13조에서 방장이 주지를 겸직함을 원칙으로



대행스님은 한마음선원 개원 23년만에 갖는 첫 서울 대법회에서 청수년을 위한 법어를 설한다.

대행스님 첫 서울대법회 9월15일 잠실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현대사회는 과연 무엇을 향해 나아가며 현대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미래의 주역 청소년들은 어떻게 꿈을 키워야 하는가. 이같은 우리 삶의 본질적인 질문을 명쾌한 대안을 제시할 '우리들의 미래와 청소년들을 위한 대행스님 큰법회'가 오는 9월15일 오후 2시 잠실 올림픽공원인 체조경기장에서 한마음선원 주최로 열린다.

조계종총무원 포교인 문체부 서울시 전곡비구니회 군북교진흥회 현대불교 불교방송 불교TV 공동후원으로 마련되는 이날 법회는 한마음선원 개원 23년만에 처음으로 서울에서 갖는 대법회이다. 부산 대구 음성 제주 광주 양양 울산 등 13개의 국내 지회와 미국 아르헨티나 등 세계 8개의 지회 등 한마음선원 신도들을 비롯한 사부대중 2만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1부 설법 2부 특별공연 국내외 2만신도 참석

열리는 대중포교 생활불교시대의 서막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올해를 '청소년의 해'로 선포한 조계종 포교원의 청소년단체 파라마이티 소속 청소년 1천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법회는 1부 청소년과 불자들을 위한 대행스님의 설법에 이어 2부에서는 국립국악관현악단(지휘 박병훈)의 공연과 한마음선원 연합합창단과의 합연 등 특별공연으로 진행된다.

대행스님은 이날 '한마음의 인생살이'는 고(古)가 없다'는 주제의 법문을 통해 흔히 '인생은 고해(苦海)'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를 바르게 일깨워줄 예정이다. 2부 특별공연은 대행스님 작시에 박병훈씨가 곡을 붙인 '정신발원의 길'이 국악관현악으로 초연되며 사물놀이 공연 국악인 김성녀씨의 창등 격조 높은 연주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식전행사로 오후 1시20분부터 오후 2시까지 비디오텍스 어린이 풍물대 공연도 마련된다. 이날 주최측은 성내 전철역(2호선) 앞에서 올림픽공원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다. <한>

제주운전불자회 8월 24일 창립 50여명 "불심으로 교통안전·건전관광 앞장" (Continuation of the article above)

의 오명을 씻어내는데 앞장선다는 입장을 표방하고 있어 도내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주불자운전기사회(064-51-0108)는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고관사 법화사 등 전통사찰 참배코스를 안내, 제주불교를 소개할 계획이다. 또 불자들을 위한 50%의 할인혜택과 기념사전을 선물, 불자로서의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회원이 1백8명까지 모집해 불교단체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히 할 방침이다.

만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놓고 지켜보는 것을 뜻 합니다. '주인공 당인만이 할 수 있어' 하고 굳게 믿으면서 일체를 주인공에 맡기고 지켜보세요. 그렇게 지켜보고 신현해보아야 뜻은 알게 됩니다. (한아유선)

마음 믿음으로 놓고 지켜보세요

합찬 한마음선원 범행체회

아셈건물 저지 결의안 채택

조계종 122회 총회 서용스님 고불총림 초대방장 추대

조계종 제122회 임시총회(의장 설정)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종법 제 개정을 논의하는 등 20여개의 중대한안문제를 처리하고 폐회했다. 중무기단 업무보고에서 문사부는 "내년부터 전국 사찰에서 보호하고있는 결승아름과 노인들의 현황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사업부는 "생수사업팀을 결성해 사업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으며 9월말경 (가칭)불교경제 연구소를 설립해 사찰의 경제경영부문에 대한 지원과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고 보고했다.

이밖에 총회의원들은 정기총회를 앞두고 7개분과로 구성된 종정감사특별위원회를 결성하고 총무원과 합동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고불총림 초대방장에 서용스님을 만장일치로 추대하고 해인사를

기초선원중심도량으로 선정했다. 중앙신도회 구상에 관해 총회의원들은 집행부와 준비위원회의 무능을 질타하고 빠른시일내에 중앙신도회를 출범시킬 것을 촉구했다.

'총림설치법 중헌위배' 심판 청구 현봉·명진·종광스님 조계종 중앙총회 의원 현봉명진종광스님은 지난 3일 법규위원회에 '총림설치법 중헌위배'를 심판을 청구했다. 총회 선임직 대표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총림설치법은 제1조 근거규정이 중헌위배와 다른 근거불명의 조항이다"며 중헌위배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스님들은 또한 "총림설치법 제13조에서 방장이 주지를 겸직함을 원칙으로

Advertisement for '전통 숙작유기' (Traditional Herbal Tea) featuring a product image and detailed text about its health benefits and ingredients.

Advertisement for '신비의 바라밀 숙뜸기' (Mystery of Barimil Herbal Steamer) featuring a product image, a list of ailments it treats, and pricing information.